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教育學碩士 學位論文

복합접속조사 「と同時に」와
「とともに」의 의미기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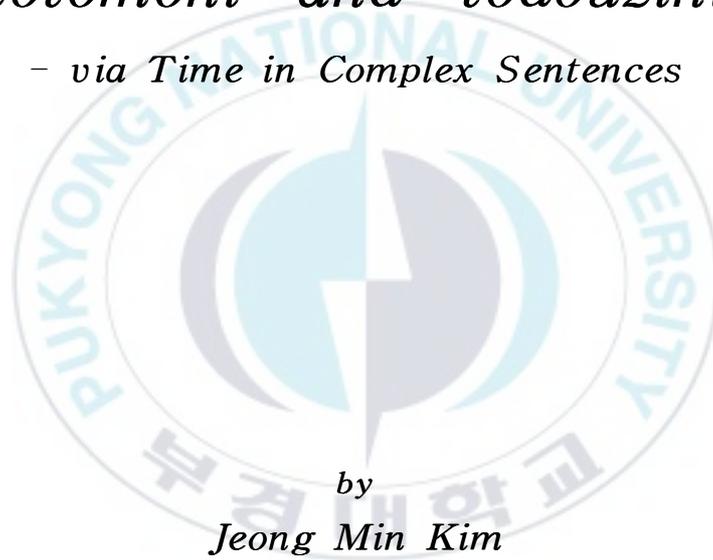
-시간을 나타내는 복문의 관점에서-



金正敏

*Thesis for the Degree
Master of Education*

*A Semantic Study
of the Conjunctive Particle,
"totomoni" and "todouzini"
- via Time in Complex Sentences*



*by
Jeong Min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ugust 2007

教育學碩士 學位論文

복합접속조사 「と同時に」와
「とともに」의 의미기능 분석

指導教授 孫東周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7 년 8 월

釜慶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金正敏

金正敏의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7 년 8 월 30 일



主 審 朴 營 淑 (印)

委 員 孫 東 周 (印)

委 員 崔 建 植 (印)

目 次

I. 서 론	1
1. 들어가기	1
2. 선행연구	5
3.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3
II. 본 론	15
1. 「と同時に」의 의미기능	15
1.1 항상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능	15
1.2 동시성을 나타내는 기능	17
1.2.1 전체적 동시성을 나타내는 기능	18
1.2.2 부분적 동시성을 나타내는 기능	20
1.3 계기성을 나타내는 기능	24
1.4 시간의 종속복문에서 「同時に」의 의미분화	26
1.5 「同時に」의 「夕形」	27
2. 「とともに」의 의미기능	29
2.1 단순한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	30
2.2 동시성을 나타내는 기능	33
2.3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기능	35
2.4 시간의 종속복문에서 「とともに」의 의미분화	38

3. 「と同時に」와 「とともに」의 의미기능 비교	39
3.1 치환 가능한 의미기능	41
3.2 치환 불가능한 의미기능	45
3.3 치환 시 부자연스러운 의미기능	48
Ⅲ. 결 론	52

<참고문헌>

<용례출전>

<표 차례>

[표1] < 접속조사 · 복합접속조사 대응표 >

[표2] < 접속조사 · 복합접속조사 대응표 중 「同時に」와 「とともに」 >

[표3] < 텐스와 아스펙트의 상관관계 >

[표4] < 시간의 종속복문 체계 >

[표5] < 확장 아스펙트 · 텐스 체계 >

[표6] < 「同時に」의 종속문과 주문의 아스펙트 · 텐스 >

[표7] < 복문의 구조 >

[표8] < 「とともに」의 아스펙트와 텐스 >

[표9] < 두 표현의 치환 가능 유무 >

[표10] < 계기성, 상관관계를 아스펙트 · 텐스 >

[표11] < 「同時に」가 부분적 동시성을 나타내는 경우 >

**A Semantic Study of the Conjunctive Particle,
"totomoni" and "todouzini"**

- via Time in Complex Sentences

Jeong Min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multi meaning of complex conjunctive postposition "todouzini" and "totomoni". The principal and subordinate clause of "todouzini" and "totomoni" can be classified several different meanings by temporal relationships. Based on Kudo's study on the temporal relationship in complex clause, this study divides principal and subordinate clause into synchronousness and sequence. And separates synchronousness full and partial to analyze meaning function of two expressions in time domain.

The meaning function of "todouzini" can be divided 4 categories.

First, when "todouzini" means constant characteristic, it expresses status of objects. Second, When "todouzini" means full synchronousness, the contents of principal and subordinate clause is a method of achieving a goal and that is additive or opposite. Third, When "todouzini" means partial synchronousness, the subordinate clause appoints a cause and the principal clause appoints a event that was created by a result of the subordinate clause. Fourth, When "todouzini" means sequence, it expresses a creation of the principal clause following after perfect completion of the subordinate clause. Take a look at the meaning transition of "todouzini", it can be analogized that the early stage of "todouzini" was

converted sequence into synchronousness by overlap of temporal domain and featured constant characteristic by a suspension of temporal concept. It is possible that discovering "ta-form" style verb in the subordinate clause. "ta-form" style verb is used to emphasize completion of movement.

The meaning function of "totomoni" can be divided 3 categories.

First, the simple form of "totomoni" that indicates tense but it doesn't mean aspect. This case implies that the principal clause's event is established naturally by happening the subordinate clause. Second, when "totomoni" indicates synchronousness, the two different events would be happened in the limit time or space. Two events was related when comparing synchronousness of "totomoni" and "todouzini". Third, when "totomoni" is mutual relation, the change of the principal and subordinate clause is progressed at the same time. Focused on the meaning differentiation of "totomoni", it was alternated the function of indicating simple condition and synchronousness.

The unique function of "todouzini" and "totomoni" is that when "todouzini" indicates sequence and "totomoni" indicates mutual relationship. It doesn't matter grammatically when two expressions are inversed each other but those have tendency to be unnatural. That kind of unnatural mood would happen in case that inverting clause combines with generally accepted situation or inconsistent knowledge or already used in idiomatic expression.

I. 서론

1. 들어가기

복합조사(複合助詞)란, 복수의 단어가 결합하여 전체로써 하나의 단어인 조사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언어(連語)를 말한다. 복합조사는 기능면에서 조사가 갖는 역할 뿐만 아니라, 의미면에서 복수의 단어가 결합해서 각각의 요소들이 갖는 의미보다 확장된 의미를 갖기도 한다. 조사를 문장 속에서의 기능에 따라 격조사, 접속조사 등으로 나누는 것처럼, 복합조사도 그 기능에 따라 복합격조사, 복합접속조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복합접속조사¹⁾의 연구는 永野(1953)에서 시작하여 水谷(1964), 松木(1993, 2003, 2004)로 이어져 진행되고 있다. 복합사라는 용어를 제창한 永野(1953)는 時枝의 詞辭論을 근거로 하여, 복합조사란 「몇 개의 어(語)가 하나의 단위로 결합되어 사(辭)적 기능을 하는 것²⁾」으로 정의하고 있다. 永野의 연구는 복합사에 관한 시초이지만, 복합조사 전반에 걸친 형식면·내용면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水谷(1964)는 종래의 품사론을 기본으로 한 분석이 실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조사를 문법적, 의미적인 측면에서 분류하였지만, 접속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際/~時/~折」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의미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1) 永野(1953)는 복합사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단순한 구성요소에 더하여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을 것」라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새로운 의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砂川(1987)의 이론에 따라 복수의 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조사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표현을 「복합접속조사」로 본다.

2) 永野(1953:33)

지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 松木(2004)는 水谷의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조사 연구를 보완하여 「시간적 관계」, 「순접조건」, 「역접조건」으로 나누어 접속조사를 더욱 자세히 분류하였다.

松木가 분류한 접속조사 분류표는 다음과 같다.

< 접속조사 · 복합접속조사 대응표 >

< 표1 >

時 間 的	同 時 性	や と	や否や が早いが	時 間 的 関 係	相 関	や と	<u>とともに</u> にともな って に付隨 して	仮 定 条 件	も	ないまでも たところが たところ としても にしても にしたって にしろ にせよ (よ)うが (よ)うと(も)	
		たら	たとたん た瞬間に	時 間 的 関 係	対 立 ・ 付 帯 状 況	な が ら つ つ	<u>と同時に</u> 一方 かたわら			も	からといって たところ とはいえ とはいっても とはいもの とはいいながら としても にしたって にしろ にせよ
		たら と	そばから <u>とともに</u> <u>と同時に</u> かと思 うかと思 えばか かと思 ったら かと思 もなく かと思 みると かと思 みれば	順 接 関 係	仮 定 条 件	た ら な ら ば た ら な ら ば と	も の な ら か ぎ り て は と す る と と す れ ば と し た ら (よ)う も の な ら こ と に は			逆 接 関 係	確 定 条 件

関 係	継起	て	たうえで たうえに	継起				の に が け れ ど も	にもかかわらず くせに くせして もの にしては わりに わりあいに			
		てと	たすえに たあげくに たなりで たままで		たらと	では						
		と	たところ たところへ		たらなら	とすると とすれば としたら						
		とたら	たところが		ばと	てみれば てみたら						
		てから	ていらい たあとで たあとに			だけに だけあって ばかりに ものでも だから ために おかげで						
			あとに に先立って			せいか に従い に従って につれて						
	期間	あいだに まに うちに	係	因果関係	対比	の に が け れ ど も	の に 対 し て か わ り に か と 思 う と か と 思 え ば か と す れ ば <u>と同時に</u>					
	時点	<u>と同時に</u> 際に 時に 折に 節						ので から	どこ か か わ り に			
	反復	ては たびに ごとに						ので から たら なら ば	平接 関係	添 加	て	うえに ばかりか
	相関	や と						目的	た め に			ど こ ろ か

松木(2004)가 제시한 <표1>의 내용 중, 다른 표현과 달리 「と同時に」와 「とともに」는 의미상의 중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에서 「と同時

に」와 「とともに」가 가지는 의미영역을 발췌하면 <표2>와 같다.

< 접속조사·복합접속조사 대응표 중 「と同時に」와 「とともに」>

< 표2 >

時間的關係	同時性	とともに	と同時に
	対立・付帯状況		と同時に
	相關	とともに	
	時点		と同時に
逆接關係	對比		と同時に

松木(2004)는 水谷(1964)의 연구를 발전시켜 <표1>과 같이 복합조사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을 제시하고, 접속조사가 지니는 의미영역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松木는 형태론적 관점에서만 분석하고, 통사론·의미론적 측면에서 각 표현이 어떠한 의미기능을 가지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각 표현의 분류 과정에 대해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표2>로 「と同時に」와 「とともに」는 다의적이면서도 유의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접속조사보다도 「と同時に」와 「とともに」가 복합적인 의미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と同時に」와 「とともに」가 시간관계에서 종속문과 주문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두 표현은 의미상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 선행 연구

선행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広辞苑』에서 「と同時に」와 「とともに」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 どうじに【同時に】

① 二つ以上のことがほとんど同じ時に行われるさま。まさにその時。いちどきに。

「同時に二人が発言した」

② (接続助詞的に)

(ア) …とともに。一方。「歓喜と同時に不安がおこった」

(イ) …するやいなや。…とすぐ。「汽車がとまった。同時に電車は発車した」

○ ともに【共に】

① ひとつになって。いっしょに。相連れて。同じく。

② 同時に。「日が暮れるとともに街は活気を呈した」

사전적 의미에서도 「どうじに」와 「ともに」가 중복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접속조사 용법으로 「どうじに」의 설명에는 「…とともに」라고 되어있고, 「ともに」의 설명에는 「同時に」로 되어있어, 의미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塩入(1997)는 복문 중 병립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종속문의 변화에 연동하여 주문의 변화가 생긴다는 관점에서 「とともに」, 「につれ」, 「にともない」, 「にしたが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とともに」는 종속문과 주문이 동시에 성립함을 나타내며, 동시성립을 나타낼 때에는 「につ

れ」「にともない」「にしたがい」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と同時に」는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 (1) 田中さんは小説を書く {○とともに/○と同時に}、絵もかいています。
- (2) 学校を通う {○とともに/○と同時に} 仕事もし続けています。

塩入는 두 표현의 차이점을 다음 세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同時に」는 종속문이 동사 과거형과 접속가능하다.

- (3) 彼が出ていったのと {○同時に/×ともに}、彼女が入ってきた。

둘째, 「同時に」는 종속문과 주문이 동시성을 가질 때, 그 정도를 명시하는 부사와도 같이 사용가능하다.

- (4) 彼が出ていくのとほとんど {○同時に/×ともに} 彼女が入ってきた。

셋째, 「同時に」에는 접속사적인 용법이 있다.

- (5) 彼は出ていった。 {○同時に/×ともに}、彼女が入ってきた。

그러나 塩入가 제시한 차이점은 (3), (4), (5)처럼 「同時に」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또한 「종속문이 과거형」, 「접속사적 용법」과 같이 형태적 사항만 지적하고, 의미기능상으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더불어 (6)은 塩入의 주장과 부합되지 않는다.

(6) 「プロの世界でもまれているので、勝利に対してどん欲になっている」これまで日本に対して優位に立っていた韓国サッカーは、体力的に勝る{とともに/×と同時に}、
「日本に負けたくない」という精神力の強さが指摘されてきた。 (朝日新聞2000)

(6)은 塩入가 제시한 (1), (2)처럼 종속문과 주문이 동시에 성립하지만 「とともに」만 사용할 수 있다. (3)처럼 종속문의 동사가 과거형이 아니며, (4)처럼 부사가 같이 사용된 경우도 아니다. 따라서 문장의 형태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기능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통사론, 의미론적 관점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とともに」와 「と同時に」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日本語文型辞典』(2002)은 「と同時に」는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성립하며 전후의 의미 내용에 따라 (7), (8)처럼 누가(累加), 대비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7) この手術はかなり危険を伴うと同時に費用もかかる。 [累加]

(8) 当選できて大変うれしく思いますと同時に、議員としての責任に身の引き締まる思いです。 [対比]

『日本語文型辞典』에서 제시된 예문은 주어의 속성만을 나타내지만 塩入(1997)처럼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9)와 같이 주어가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 어떠한 의미기능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9) 三洋電機は十三日、パソコンや大画面テレビ向けなどに需要が増加している薄膜トランジスタ (TF T) 液晶パネルを生産する工場を鳥取市に新設すると同時に、旧型液晶パネル生産設備の一部を台湾企業に売却したと発表した。

(朝日新聞2000)

다음으로 『日本語文型辞典』(2002)에서 「とともに」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면 「とともに」는 (10)과 같이 동작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나 명사를 받아 종속문의 동작이나 변화에 의해 다른 동작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와, (11)과 같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とともに」는 「~と同時に」와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10) 年をとるとともに記憶力が衰えてきた。

(11) 今後、教育内容の充実を図るとともに、地域社会に貢献する大学の建設に努力する所存でございます。

그러나 (10)의 「とともに」를 「同時に」로 바꾸면, 나이를 먹는 것과 동시에(일순간에) 기억력이 감퇴는 것 같아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실제 (10), (12)의 「とともに」를 「同時に」로 바꾸었을 때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므로, 「とともに」와 「同時に」가 유사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12) 人は持って生まれた造作にかかわらず、年を取る {とともに/×同時に} いい顔になる人と、そうでない人がいる。

(朝日新聞2000)

다음으로 『中上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2002)에

서는 「と同時に」는 2개의 사건이 동시에, 혹은 거의 간격을 두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며, (13)처럼 순간적인 사건만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13) 稲妻が走ると同時に、すさまじい雷がとどろいた。

이에 비해 「とともに」는 (14)처럼 나이를 먹어가면서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하는 시간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사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15)처럼 순간적인 사건도 나타낸다. 순간적인 사건을 나타낼 경우에는 「とともに」가 「~と同時に」에 가까운 의미를 나타낸다.

(14) 年をとるとともに、もの忘れがひどくなってきた。

(15) 彼は大学を卒業するとともに、アメリカに渡った。

(13)의 「同時に」가 시간상의 전후관계가 순간적인 것과 (14)의 「とともに」가 종속문과 주문이 조건이나 이유로 연결되는 표현이라는 설명은 「同時に」와 「とともに」의 전형적인 의미로 생각된다. 그러나 「同時に」와 「とともに」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주문과 종속문의 시간적 순서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복문의 시간관계를 다룬 연구는 工藤(1997) 등이 있다.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인 텐스와 아스펙트의 체계³⁾를 살펴보자.

3) 工藤(1997:36)

< 텐스와 아스펙트의 상관관계 >

< 표3 >

	完成相	継続相
비과거	スル	シテイル
과거	シタ	シテイタ

<표3>처럼 문(文)의 아스펙트는 완성상, 계속상, 텐스는 비과거, 과거로 나눌 수 있다. 문법범주 내에서 아스펙트와 텐스는 상보적 대립관계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とともに」와 「と同時に」도 시간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工藤의 연구를 참고로 한다.

工藤(1997)는 「トキ (ニ) ,マエ (ニ) ,アト (テ) ,アイダ (ニ) ,マテ (ニ) ,カラ」를 분석하여 시간의 종속복문에 대한 구조를 체계화하고 있다.

工藤의 분석을 살펴보면, 우선 시간적 순서관계에 따라 동시적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그룹과 계기적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계기성을 나타내는 그룹은 「후속-선행」관계에 있는 것과 「선행-후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누었다. 동시적 시간관계와 계기적 시간관계를 시간 폭의 관점에서 시간 한정과 기간 한정으로 나누어 <표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시간의 종속복문 체계 >

< 표4 >

時間的順序		時間中	時間	期間
		共起 (同時)	トキ (ニ)	アイダ (ニ)
繼起	後続 (-先行)	マエ (ニ)	マデ (ニ)	
	先行 (-後続)	アト (デ)	カラ	

동시적 시간관계와 계기적 시간관계의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동시적 시간관계를 종속문의 아스펙트와 주문의 아스펙트의 상관관계에 따라 동시성(同時性)과 계기성(繼起性)으로 나누고, 동시성은 종속문과 주문이 계속상인지 완성상인지에 따라 전체적 동시성과 부분적 동시성으로 나누고 있다. 전체적 동시성이란 종속문이나 주문이 모두 계속상인 경우이며, 부분적 동시성이란 종속문 혹은 주문 어느 한쪽이 계속상(B)이거나, 둘 다 완성상(A)인 경우를 말한다.⁴⁾



工藤는 주문과 종속문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4) 工藤(1997:242)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적 정의로는 의미가 중복되어 그다지 차이점을 알 수 없다.

둘째, 塩入(1997)가 제시한 「と同時に」와 「とともに」의 차이점으로 「同時に」는 종속문에 동사 과거형이 오는 실례를 지적하고 있으나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고, 「同時に」와 「とともに」가 가지는 전체적인 의미기능에 대한 설명도 없다.

셋째, 『日本語文型辞典』는 「同時に」의 전건과 후건이 동시에 성립하는 상태만 다루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실례도 찾아 볼 수 있다.

넷째, 『中上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는 「同時に」가 순간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의미기능만 설명하고, 「とともに」는 순간적인 사건과 계속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한다. 「とともに」와 「同時に」가 의미상 가깝다고만 할 뿐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다섯 번째, 선행연구 전반적으로 「同時に」와 「とともに」의 어휘적 분석에 그칠 뿐, 복문 내에서 어떠한 시간적 관계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工藤의 확장 아스펙트·텐스체계와 시간을 나타내는 복문에 관한 연구를 참고로 하여, 「同時に」와 「とともに」가 가지는 전반적인 의미기능을 시간관계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工藤가 제시한 「확장 아스펙트와 텐스의 체계⁵⁾」는 다음과 같다.

5) 工藤(1997:43)

< 확장 아스펙트·텐스 체계 >

< 표5 >

拡大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

アスペクト テンス	完成性	継続性	パーフェクト性	反復性
未来	スル	シテイル	シテイル	スル /
現在	/	シテイル	シテイル・シタ	スル・シテイル
過去	シタ	シテイタ	シテイタ	シタ・シテイタ

知覚的現在
心理的現在

発見・想起
差迫った要求

<モーダルな用法>

単なる状態

<脱アスペクト用法>

恒常的特性

<脱アスペクト・テンス用法>

3.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工藤가 제시한 시간체계는 「と同時に」, 「とともに」를 분석하기 위한 시간체계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と同時に」, 「とともに」도 주문과 종속문이 시간관계를 나타내며, 둘 다 시간상에 있어서 동시(同時)와 계기(繼起)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と同時に」와 「とともに」의 시간관계를 동시적 시간관계와 계기적 시간관계에 따라 분류하고, 아스펙트와 텐스를 나타내지 않는 항상적 특성, 아스펙트를 나타내지

않는 단순한 상태까지 분석하여 두 표현의 전체적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と同時に」와 「とともに」의 의미의 변화 과정과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으로 하는 실례는 「朝日新聞」, 「新潮文庫の100冊」, 인터넷 사이트에 나오는 예문을 사용하며, 예문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장과 제 2장에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同時に」와 「ともに」 예문에 밑줄()을 그어서 표시한다. 제 3장에서 「同時に」와 「ともに」의 차이를 분석하는 경우, 두 표현을 중괄호로 묶고, 사선(/)을 그어서, 원문에서 사용된 표현을 사선 앞에 표기하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선 뒤에 표기한다. 바꾸었을 때, 문맥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동그라미표(○)로 표시하고, 문맥상 바꿔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위표(x)로 표시한다. 그리고 바꾸어 넣었을 때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자연스러운 문장은 물음표(?)로 표시한다.

Ⅱ. 본 론

본론의 제 1장에서는 「と同時に」의 의미기능, 제 2장에서는 「とともに」의 의미기능, 제 3장에서는 두 표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1. 「同時に」의 의미기능

「同時に」는 시간적 대립을 나타내지 않는 항상적 특성과 시간에 따라 종속문과 주문의 관계를 나타내는 동시성, 계기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동시성은 전체적 동시성과 부분적 동시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1.1 항상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능

「同時に」는 종속문과 주문에 존재동사, 명사 술어처럼 정적술어(靜的述語)로, 아스펙트와 텐스를 나타내지 않으며 이것은 工藤의 항상적 특성⁶⁾으로 판단된다. 항상적 특성을 나타낼 때에는 「人は死ぬ」, 「鉄は電氣を通す」와 같이 시간 속에서의 전개성은 문제시 하지 않는다. 아스펙트와 텐스의 대립은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의 시간적 전개 차이와 시간적 위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同時に」가 항상적 특성일 때에는 동일 주어가 가지는 복수의 특성을 나타낸다.

6) 工藤(1997:43)

(16) 「大学の自治」である。大学教員は、研究者であると同時に教員である「教員研究者」であって、「大学の自治」の当然の帰結として、大学の意思決定に参加し、学内行政に携わることになる。大学は「トップダウン」ではなく、むしろ「ボトムアップ」な組織である。 (朝日新聞2001)

(17) 私にとってナオミは妻であると同時に世にも珍しい人形であり、装飾品でもあったのですから、敢えて驚くには足りないのです。 (知人の愛)

(18) シリコン樹脂を使ったドアノブカバー「ドアホタル」を販売するのはNTTアフィリエイト。静電気を防ぐと同時に、暗やみで蛍光発光する。 (朝日新聞2000)

(19) 未来を築くために最も重要なことは、いかにして人材を育てるかであります。「教育立国」を目差し、二十一世紀を担う人々はすべて、文化と伝統の礎である美しい日本語を身につけると同時に、国際共通語である英語で意思疎通ができ、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国際社会の中に自在に入っていけるようにすることです。 (朝日新聞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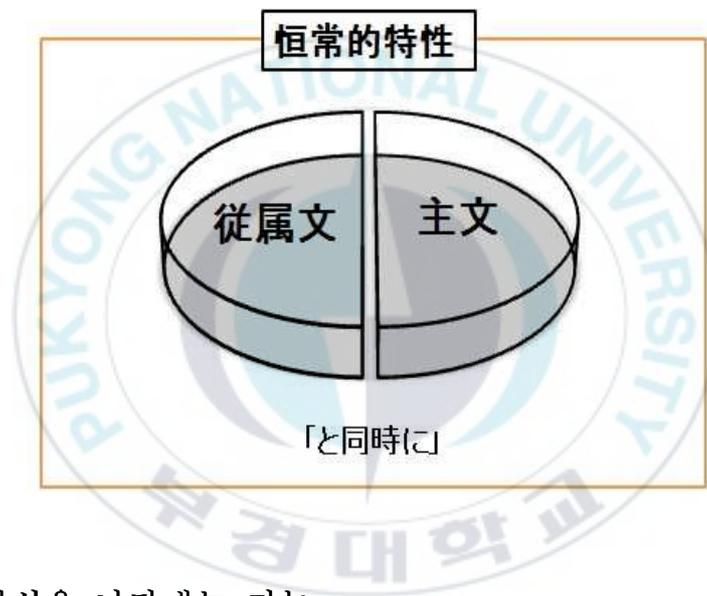
(16)의 대학교원은 연구자라는 신분과 교원이라는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징을 설명한다. (17)도 나옴이는 동작주에게 있어서 부인이기도 하며, 인형이나 장식품이기도 한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16), (17)과 같이 동일 주어가 나타내는 신분이나 속성은 시간 내에서 전개성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아스펙트를 나타내지도 않으며, 텐스에 의해 변하지 않는 사실도 나타내지 않는다. (18)은 「도아 호타루(ドアホタル)」라는 손잡이의 특성으로 정전기 방지와 발광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사물의 특성 역시 그 사물이 사용되는 동안 변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므로 아스펙트와 텐스가 대립하지 않으며, 「超時⁷⁾化」하여 항상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19) 역시 인재

7) 工藤(1997:43)는 「人は死ぬ」, 「鉄は電気を通す」와 같이 아스펙트·텐스의 분화(대립)가 없는 문을 「超時」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超時」개념은 『基本日本語文法一改訂版』(1993:109)에서도 설명하고 있다. 시간

가 지니는 특성인 일본어 능력과 영어 능력은 인재라는 조건이 성립한다면 지니는 두 가지 능력(특성)을 나타내므로 항상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아스펙트도 텐스도 나타내지 않는 「と同時に」의 항상적 특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항상적 특성을 나타낼 때, 「同時に」는 단순히 사람이나 사물이 지니고 있는 속성만을 나타내며, 시간에 따른 변화는 문제되지 않는다.



1.2. 동시성을 나타내는 기능

「同時に」를 중심으로 주문과 종속문이 동시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관해 살펴본다. 주문과 종속문이 시간상 중복되는 정도에 따라 전체적 동시성과 부분적 동시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을 초월한 사태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이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속성(성질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文이다. 예를 들어 「オリンピックは4年に1度開かれる」와 「日本人は勤勉だ」와 같은 文은, 문제의 사태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위치를 문제로 삼지 않는다. 단순히 대상이 갖는 어떠한 속성을 표현하기만 한다.

1.2.1 전체적 동시성을 나타내는 기능

「と同時に」의 주문과 종속문의 시간관계가 전체적 동시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 알아본다. 전체적 동시성의 의미는 주문과 종속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중복되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0) 国民生活センターでは、エステー業者に施術内容の検討と安全性の確保などを要望すると同時に、行政に対しても、使用している溶液の実体調査と安全性の確保を要望した。 (朝日新聞2000)

(21) エディが内藤のトレーナーになってまずなくてはならないと考えたのは、インファイトのテクニックを習得させると同時に、敵との闘いに際してのガッツを植えつけることだった。 (一瞬の夏)

(20)에서 국민생활센터가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마사지 사업자와 행정 관리자가 노력 해 주길 바라는 것을 요구하므로 두 사건은 계속상이다. (21)도 기술을 연마하는 것과 근성을 키우는 것도 일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행동으로 계속상이다. 「同時に」의 주문, 종속문이 계속상을 나타낼 때 두 사건은 병행해서 진행된다. 工藤는 주문과 종속문이 계속상이면 전체적 동시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同時に」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 동시성을 나타낼 때 「同時に」의 주문과 종속문이 어떠한 내부적 시간관계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동시성을 나타내는 시간적 순서관계는 계기성과는 다르게 종속문의 동작 내부가 시간적으로 분할된다. 工藤는 계기성이 외적 시간대립을 나타내는 상대텐스라면, 동시성은 내적 시간대립인 아스펙트의 대립으로 전환된다.⁸⁾고 한다. 「同時に」도

주문과 종속문이 계속상이면 주문의 동작은 그 동작이 이루어지는 시간 폭을 가지고, 종속문은 종속문이 이루어지는 동안 시간 폭을 가지게 되어, 두 사건은 대립하여 진행된다. 두 사건의 외부적인 시간관계를 보면, (20)의 요구하는 행위는 마사지 사업자와 행정 관리자에게 일순간에 전달하였는가에 초점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두 사건이 병행해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21)도 훈련 기간 동안 기술을 기르는 훈련과 정신력을 기르는 훈련을 병행함으로써 선수의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별개의 사건이 「と同時に」의 전후에 위치하는 경우, 두 사건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등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22) 職業軍人だった舟木の父は、私たちが四年生のとき、学校へ来て、生徒の前で講話をした。諸君、勉強に励むと同時に、身体をしっかり鍛えておきなさい、と舟木陸軍少佐は言った。諸君がやがて青年に達すれば、戦場へ赴いて、弾丸が雨霰と(あめあられ)降る中を、命令一下、敵軍へ向かって突撃せねばならん、そういう時、のろのろと動きが鈍い者に限って当たるのです、敵兵を一人も倒さぬうちに死んでしまうのは犬死だ、諸君。(朝日新聞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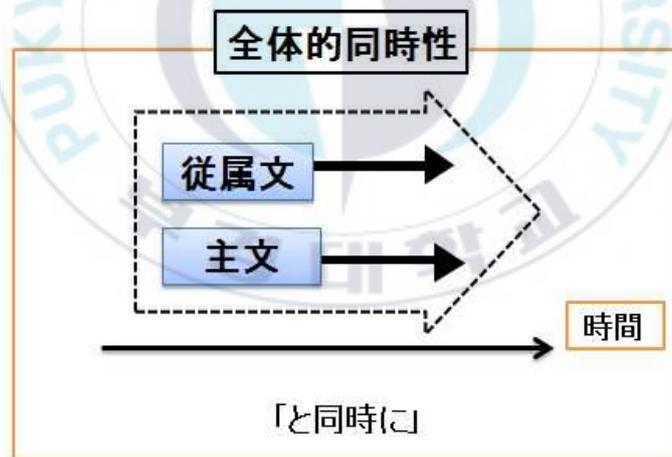
(23) それでは、中台関係の緊張緩和に日本はどんな役割が果たせるのか。河野外相のこの日の答弁は「安易に緊張感を高めるような行動、発言は慎むべきだ。何をするかを考えると同時に、何をしてはいけないか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慎重だった。「平和的対話の環境整備に努める」とは言うものの、それ以上は踏み込まなかった。(朝日新聞2000)

(22)에서 화자(舟木の父)가 학생들에게 전하려는 것은, 전쟁터에서 살아

8) 王藤(1997:225)

남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신체를 단련하는 것은 별개의 내용이지만, 「と同時に」로 연결되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수단으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23)에서도 동작주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용상으로는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두 개념은 결과적으로 별개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간적 관계와 의미적 측면을 정리하면, 「同時に」의 전건과 후건이 계속상이면 일정 기간 내에서 행해지는 동작이며, 이 동작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등한 수단, 방법으로 사용되는 등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여기서의 일정기간이란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 전건과 후건의 동작이 행해지는 기간을 말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2.2 부분적 동시성을 나타내는 기능

「と同時に」가 전체적 동시성을 나타내는 기능에 이어서 부분적 동시성을 나타내는 기능에 관해 살펴보자.

(24) 「桃から生まれた桃太郎、気はやさしくて、力持ちー」

その唱歌を聞くと同時に、思わず涙は丑松の顔を流れた。 (破戒)

(25) その日も、仕事を終えて電車に乗り込むと、いつものように耳栓をした。さいわい腰をかけることができ、目を閉じると同時に、つい眠ってしまった。しかし、降りるべき駅の手前で目が覚めて、何ごともなく帰宅した。居眠りしたって、乗り過ごしたりはしないわ。 (朝日新聞2001)

(26) 「風の丘を越えて」という韓国映画を、評者はかつてゼミの学生たちと見た。アジア政治の理解のためにアジア映画を見るという企画の一環としてであった。この映画は一九九三年に韓国で公開されると同時に若者世代にも大ヒットした。盛り場を行き交う若者がやたら「ああ」とか「ううう」とかパンソリらしい声をはりあげ、一種ファッションといえるような現象を巻き起こしたといわれる。 (朝日新聞2000)

(24), (25), (26)은 종속문에 해당하는 노래를 듣다, 눈을 감다, 공개된다는 사건이 성립된 후에 성립된 동작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주문에 해당하는 눈물을 흘리다, 자버리다, 젊은 세대에게도 대히트하다가 발생한다. 종속문의 동작이 지속되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계속상이며, 주문은 순간적인 동작이 발생한 것을 나타내므로 완성상이다. 종속문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주문이 발생하므로 주문과 종속문의 위치를 바꾸었을 때는 시간적 전후관계가 역으로 성립하여서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24a) × 思わず涙が流れると同時にその唱歌を聞く。

(25a) × つい眠ってしまうと同時に目を閉じる。

(26a) × 若者世代にも大ヒットすると同時に韓国で公開される。

이 경우 종속문의 동사를 완료로 본다면 주문과 종속문이 완성상이 되어 계기성을 나타내게 되므로 계기성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가령 (25)의 「閉じる」가 「閉じた」인지 「閉じている」로 인지에 따라 완성상으로도 계속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閉じた」가 완성상이라면, 주문, 종속문 둘 다 완성상이 되므로 계기성을 나타내게 되고, 「閉じている」라면 계속상으로 부분적 동시성을 나타낸다. 계기성을 나타내는지 계속을 나타내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종속문의 아스펙트를 알 필요가 있다. 종속문의 아스펙트를 알기 위해 「～まま」⁹⁾의 개념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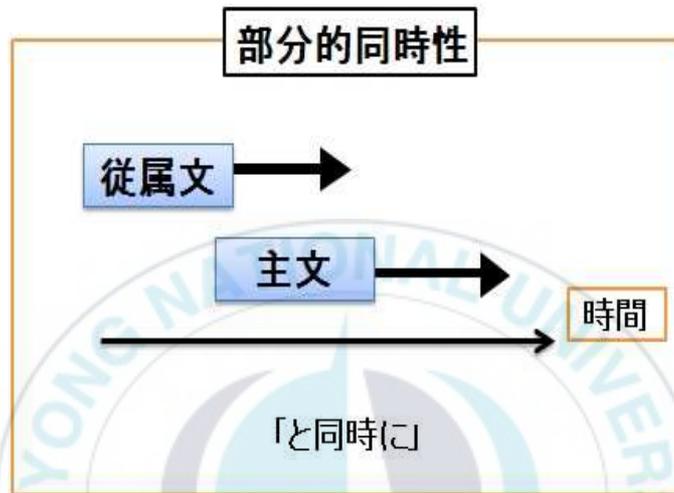
(27) ネクタイを締めたまま寝てしまった。

「～まま」는 종속문의 동작결과가 그대로 지속되는 상태에서 주문의 동작이 발생한다. 「～まま」의 종속문인 「ネクタイを締めた」는 동작의 완료만이 아니라, 그 후 「ネクタイを締めている状態」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주문이 발생한 것을 나타낸다. 만약 도중에 누군가가 넥타이를 풀어 줬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7)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と同時に」도 (25)의 「目を閉じる」가 동작이 완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상속에서 잠을 자게 된다. 더불어 눈을 뜨게 순간 자는 동작도 성립하지 않게 된다. (25)의 문장 뒷부분 보면 「目が覚める」라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寝る」라는 동작은 종결되어 버린다. 따라서 (25)의 종속문의 「閉じる」는 「閉じる→閉じた→閉じている」로 눈이 감긴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부분적 동시성

9) 『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2000:195)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종속문이 계속상이어야 하는 만큼 이 점이 문 성립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분적 동시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두 사건의 의미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종속문이 주문이 발생하는 배경이고 종속문이 지속되지 않으면 주문이 성립하지 않게 되므로, 종속문이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한 종속문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 주문의 동작이나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24), (25), (26)도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눈을 감았기 때문에 자버렸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대히트를 하였다와 같이 종속문이 원인의 역할을 하고, 주문은 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夕形+から」, 「たら」로 바꾸어도 문장은 성립한다.

(24b) その唱歌を聞き{たから/たら}、丑松は涙を流した。

1.3 계기성을 나타내는 기능

(28) そんな話を横で聞いていたおじいさんは、真っ赤な靴下をはき、足をばたつかせてステップを踏んでいます。きっと一番風呂を目指してウォーミングアップをしているのです。これは負けてはならないと前もって小銭を用意し、店が開くと同時に一番に飛び込み、お金を払いました。料金は310円ですが、洗髪料が40円もするので

(朝日新聞2000)

(29) あれ！と彼は発車間際の電車からあわてて飛び降りた。降りると同時に電車が出発した。

(冬の旅)

(30) 3年ぶりに突然、実家に戻った。父は黙って迎えた。トランクを置くと同時に夫からの電話が鳴った。私は出なかった。許せないことがあった。

(朝日新聞2001)

(31) 幸いにも、息子の場合は骨髄移植をせず、化学療法で治療し、小学二年生になった現在は元気に学校へ通っております。私たち夫婦は、息子の治療が終了すると同時に、恩返しの気持ちを込めて、骨髄バンクに登録いたしました。現時点で骨髄提供のチャンスにはまだ恵まれません、いつ連絡があっても、絶対に提供しよう決心しております。

(朝日新聞2001)

(28), (29), (30), (31)은 종속문이 완료된 후 연속적으로 주문이 시작되는 계기(繼起)를 나타낸다. (28)은 가게가 열리는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뛰어 들어가서 돈을 낸 행위로, 종속문의 사태가 완료됨과 동시에 주문의 동작이 시작되었다. (29)는 행위 주체인 그가 전차에서 뛰어내린 동작이 완료된 후에 전차가 출발했다는 사건이 시작된다. (30)은 화자가 트렁크를 놓는 동작이 완료된 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올리는 별개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31)도 부부가 아들의 치료가 종료되는 동작이 완료된 후 별개

의 사건인 골수 은행에 등록하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계기성은 종속문과 주문이 모두 완성상을 나타낸다.

동작주가 다르더라도 문의 흐름에 있어서는 종속문이 발생한 후 연속적으로 주문이 발생하는 시간적 전후관계가 전제되기 때문에, (28a), (29a), (30a), (31a) 과 같이 주문과 종속문을 바꾸어서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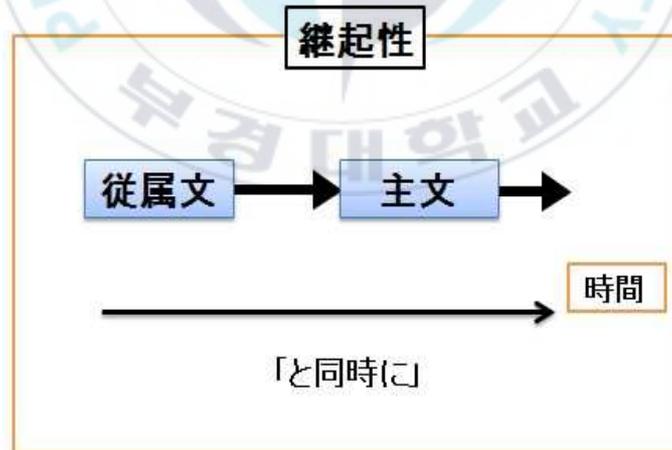
(28a) × 一番に飛び込むと同時に店が開く。

(29a) × 電車が出発すると同時に降りる。

(30a) × 夫から電話がなると同時にトランクを置く。¹⁰⁾

(31a) × 骨髓バンクに登録すると同時に息子の治療が終了する。

시간적 흐름 속의 전후관계가 있고 종속문이 완료된 후 주문이 발생하는 계기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30a)의 경우, 문법상으로는 비문이 되지 않으나, (30)과 비교하였을 때 의미가 다르므로,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

1.4 시간의 종속복문에서 「と同時に」의 의미 분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례의 아스펙트·텐스를 정리하면 <표6>과 같다.

< 「と同時に」의 종속문과 주문의 아스펙트·텐스 >

< 표6 >

예문 번호	목차 번호	종속문 동사	아스펙트 (텐스)	주문 동사	아스펙트 (텐스)
16	1.1	である	항상적 특성	である	항상적 특성
17		である	항상적 특성	である	항상적 특성
18		防ぐ	항상적 특성	発光する	항상적 특성
19		つける	항상적 특성	できる	항상적 특성
20	1.2.1	要望する	계속상 (비과거)	要望する	계속상 (비과거)
21		習得させる	계속상 (비과거)	植えつける	계속상 (비과거)
22		考える	계속상 (비과거)	考える	계속상 (비과거)
23		励む	계속상 (비과거)	鍛えておく	계속상 (비과거)
24	1.2.2	聞く	계속상 (비과거)	流れる	완성상 (과거)
25		閉じる	계속상 (비과거)	眠ってしまう	완성상 (과거)
26		公開される	계속상 (비과거)	大ヒットする	완성상 (과거)
28	1.3	開く	완성상 (과거)	払う	완성상 (과거)
29		降りる	완성상 (과거)	出発する	완성상 (과거)
30		置く	완성상 (과거)	鳴る	완성상 (과거)
31		終了する	완성상 (과거)	登録する	완성상 (과거)

工藤에 의하면 시간의 종속복문에서 <원인-결과>, <필요조건-귀결>,

<수단-목적>과 같은 인과관계는 시간관계 없이 성립할 수 없으며, 시간관계를 들여다보면 인과관계가 드러난다¹¹⁾고 한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건의 전후관계에 따라 계기성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인과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6>의 1.3의 경우 종속문과 주문이 동시성을 나타내는 시간상의 관계를 나타낸다. 1.2.2에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며 1.2.1에서는 전건과 후건은 대등한 관계로서의 수단, 방법을 나타내며, 1.1에서는 항상적인 속성을 나타낸다. 일순간적인 계기성을 나타내는 것에서 부분적, 전체적, 마지막으로 항상적인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단계를 관찰할 수 있다. 工藤가 시간관계가 있는 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것 처럼, 「と同時に」도 처음에는 시간적 전후관계를 나타내는 계기성에서 출발하여 인과관계가 강해지면서 점차 부분적 동시성으로 의미가 분화되고, 부분적 동시성에서 종속문과 주문이 대등한 위치에서 시간적으로 동시성을 나타내는 전체적 동시성으로,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항상적 특성을 나타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5 「同時に」의 「夕形」

이상으로 「同時に」가 가지는 다의적인 의미기능을 나누고, 의미변화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塩入(1997)가 지적했던 「同時に」앞에 「夕形」이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塩入은 「同時に」만의 용법으로 종속문의 동사가 「夕形」에도 접속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夕形」이 접속하는 종속문의 특성을 알기 위해, 종속문의 종류¹²⁾를 살펴보자.

11) 工藤(1997:252)

12) 『複文と談話』 중 増岡(2002:5)

< 복문의 구조 >

< 표7 >



「と同時に」의 종속문은 시간관계를 나타내므로 부사절에 해당하며, 종속문의 시제는 「상대텐스」¹³⁾가 성립한다.

「同時に」는 일반적으로 「ル形」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비과거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부분적 동시성이나 계기성을 나타낼 경우는 항상 종속문이 성립한 후 주문이 성립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주문이 과거이면 종속문은 주문보다 먼저 성립하는 과거이어야 하고, 주문이 비과거이더라도 종속문은 주문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종속문이 「タ形」이지 않아도 시간적 순서는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속문을 「タ形」으로 나타내는 것은, (32)와 같이, 종속문의 완성상을 형태적으로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32) 外に連れ出すとき、「オスワリ」や「マテ」などの基本的な行動がとれると、
 飼い主は扱いやすいものです。オスワリを学ばせる方法は、座ったと同時に「オスワリ」と言ってください。そしてごほうびを少し与えます。

大切なのは、座ったと同時に「オスワリ」と言うこと。これは数回続けていくうち

13) 『複文と談話』(2002:31) 복문의 주문은 「절대텐스」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전후관계에 따른 「과거형」이나 「비과거형」으로 정해진다. 이에 비해, 종속문의 시제는 「상대텐스」로 주문의 시제를 기준으로 한 전후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に、子犬は「オスワリ」という言葉と、座る動作の関連を認識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http://www.wan1.ne.jp/?act=Info_training)

(32)는 개를 훈련시키는 과정의 일부분으로, 개가 앉는 행위가 완료됨과 동시에 「オスワリ」라고 즉각적인 명령어를 말해야 한다. 문장에서도 훈련의 중요한 것은 「座った」라는 동작이 완료된 즉시 「オスワリ」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에 앉은 즉각적으로 명령어를 말하지 않으면,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이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명령어를 말하는 행동이다.

이와 같이 종속문이 완료됨과 동시에 주문의 동작을 행하는 것이 화자가 나타내려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경우, 「と同時に」의 종속문의 동사를 「夕形」로 나타내어, 종속문의 동작을 강조하게 된다.

2. 「とともに」의 의미 기능

「とともに」의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33), (34)의 예문을 살펴보자.

(33) 風とともに去りぬ。

(34) 【応募方法】 はがきに質問の回答を明記するとともに、郵便番号、住所、氏名をお書きのうえ、(中略) (朝日新聞2000)

(33)은 영화 첫 부분에 「문명은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A Civilization Gone With Wind)」에서 나온 것으로, 문명과 바람이 시간상 같은 시점에서 사라지는 행위가 발생한다. (34)는 엽서라는 하나의 한정된 공간에 해당과

개인정보를 같이 적는 것으로 종속문과 주문에 해당하는 동작이 완료되었을 때, 한 장의 엽서에 두 정보가 담겨지게 된다. 즉, 「とともに」는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매우 가까이 일어나는 두 개의 동작을 연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とともに」가 나타내는 의미기능에 따라 단순한 상태, 동시성, 상관관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2.1 단순한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결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나타낸다.

(35) 脳内出血による後遺症で、右半身の機能を失うとともに右目もほとんど見えなくなった私は、残された左半身の機能に便り、日々の生活に支障のないようにと、草花栽培で体を動かし、絵画、短歌をつくって頭を動かせ、生きがいとしています。

(朝日新聞2000)

(35)는 몸의 오른쪽이 기능을 잃은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공간적으로 목을 경계로 우반신이 기능을 잃은 것과 오른쪽 눈이 거의 기능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한 사람에게 일어난 것으로 신체 내부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34)의 엽서와 같이, 「とともに」의 종속문과 주문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영역 내에서 상관성을 함축하고 있다. (35)는 구체적인 신체적 변화를 나타낸 경우이고 아래의 (36)는 지각표출, 감정표출, (37), (38)은 추상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각각 동사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문과 종속문은 일정한 상관성을 가진다는 것은 공통된다.

(36) 大学に出ていなくても、実力で一国の首相になれる、そんなイギリスの土壌を
うらやましく思うとともに、誠実さで私たちが感動させてくれるような政治家が日本にいな
い現実を悲しく思った。 (朝日新聞2000)

(37) 経常赤字は、前年比五三・七%増の三千三百八十九億万ドルで、初めて
三千億ドル台を突破するとともに、過去最高となった前年に続き、二年連続で最高
記録を更新した。 (朝日新聞2000)

(38) 嘉野選手は後日、山田敦幹・朝日アマ名人(二九)に三番勝負を挑む。
この勝者は第二十三期朝日アマ名人になるとともに、第十九回全日本プロトーナメ
ントへの出場権を得る。 (朝日新聞2000)

(36)은 화자가 과거 일정 시점에 부러운 감정과 슬픈 감정을 동시에 느
꼈음을 나타낸다. (37)은 경영적자가 처음으로 3천억 달러 돌파한 결과, 이
것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면 2년 연속 적자기록 경신이라는 현상이 발생
했음을 나타낸다. (38)도 오후 경기의 승리함으로써 아마추어 세계에서 명
인이 되고, 이것은 프로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출전권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36), (37), (38)도 (35)처럼 하나의 한정된 영역 내에서 일어난
(일어나게 될) 상태를 나타낸다. (36)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 화자의 감정영
역(뇌)속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한 감정을 말하며, (37)은 한 회사의 경영적
자가 의미하는 두 가지를 나타내며, (38)은 한 선수의 승리가 의미하는 두
가지를 나타낸다. 더불어 (35), (36), (37), (38)은 종속문과 주문이 상태를
나타내고, 종속문이 완료된 결과 주문도 성립하게 되므로 두 사건의 사이
에는 필연적 혹은 자연발생적인 상관성을 띠게 된다.

工藤(1997)의 「확장 아스펙트·텐스 체계」¹⁴⁾를 참고로 하면, (35), (36),
(37), (38)처럼 텐스는 나타내지만 아스펙트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단순

14) 工藤(1997:43)

한 상태 (単なる状態)」¹⁵⁾라고 한다. 工藤는 아스펙트와 텐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스펙트와 텐스를 나타내지 않는 항상적 특성, 그리고 텐스는 나타내지만 아스펙트는 나타내지 않는 것을 단순한 상태라고 하였다. 여기서 「とともに」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결과로써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아스펙트를 나타내지 않으며 이것은 단순한 상태로 판단된다. 단순한 상태와 항상적 특성이 다른 점은, 단순한 상태는 텐스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35), (36), (37)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이며, (38)은 앞으로 발생하게 될 미래의 사실이므로 텐스의 기능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 菅谷(2002:2)에서 재인용

「ている」의 용법을 5가지로 나눌 수 있다.(工藤1982,1995 ; 寺村 1984 ; 吉川 1976)①動作の持続 (子供が公園で遊んでいる。) ②結果の状態 (そこにペんが落ちている。) ③単なる状態 (この道は曲がっている。) ④パーフェクト (漱石はたくさん小説を書いている。) ⑤習慣 (彼は毎朝ニュースを見ている。) 이 중 단순한 상태란 「この道は曲がっている」와 같이, 그 상태를 일으키는 동작·작용의 과정이 문제가 되는 않는 것이다.(吉川 1976)

2.2 동시성을 나타내는 기능

「と同時に」가 동시성을 나타낼 경우 전체적 동시성과 부분적 동시성은 의미상 대립하지만, 「とともに」는 의미상 대립하지 않는다. 단지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부분적 동시성을 나타내고, 시간적 차이가 없을 경우는 전체적 동시성을 나타내게 된다. 의미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동시성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9) 警視庁捜査四課は一五日午前、犯人隠避の疑いでこの弁護士の事務所を家宅捜査するとともに、弁護士の取り調べを始めた。容疑が固まり次第逮捕する方針。
(朝日新聞2000)

(40) 九州電力の鎌田迪貞社長は二十七日の記者会見で、新たにガス事業に参入する方針を発表するとともに、参入の仕方について「ノウハウのある既存のガス事業者と提携したい」と述べた。
(朝日新聞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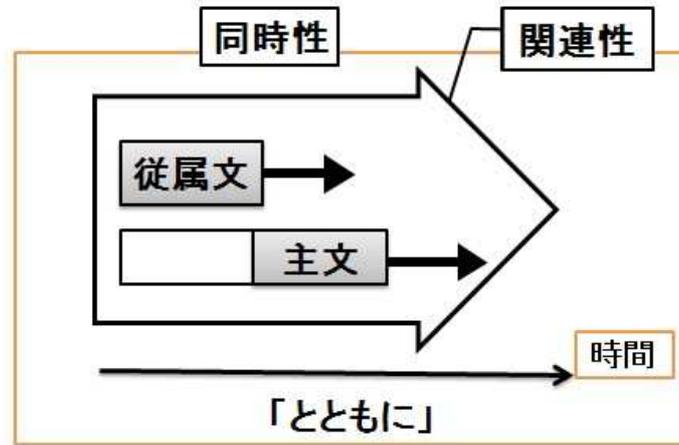
(39)에서 변호사 사무소 수사와 변호사 취조는 범인은폐 의혹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일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동작에 해당한다. (39)는 종속문의 사건은 발생하고 조사과정이 실행되는 단계에서 주문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40)은 27일 기자회견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사장이 말한 내용이다. 새로운 가스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발표한 동작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기자회견 장소 내에서 가스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참가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전후 내용은 가스 사업이라는 공통성이 존재한다. (39), (40)는 종속문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단계에서 주문의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상(과거)－완성상(과거)」이며 부분적 동시성을 나타낸다.

(41) 冷え性を予防するには、原因になる事柄を避けるとともに、血行をよくする食事をしましょう。この時期においしい大根などの根菜類は、体を温める効果があります。

(朝日新聞2000)

(41)은 몸이 차가워지는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원인이 되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동작을 하고, 원인 제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혈류를 좋게 하는 식사를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인을 피하는 동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속상이며 식이요법도 지속적인 시간 폭을 가지는 계속상이므로 종속문과 주문은 전체적 동시성을 나타낸다.

(39), (40)은 부분적 동시성이며 (41)은 전체적 동시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주문과 종속문이 한정된 영역 내에서 내용상 공통점을 가지는 것은 같다. 내용상 공통된 점을 가진다는 것을 「と同時に」의 동시성과 비교해 보면, 「と同時に」는 전건과 후건의 내용이 대비되는 개념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결된다. 반면 「とともに」는 「변호사 사무소 수색-변호사 취조」, 「방침 발표-참가 방법」, 「원인을 피함 - 혈류를 좋게 하는 식사」와 같이 동일 목적을 위한 내용상 공통된 영역, 즉 「とともに」를 제거하더라도 두 사건은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とともに」는 시간적으로는 동시성을 나타내고, 내용상으로는 서로 관련된 내용을 나타낸다.



2.3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기능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와 시간관계 속에서 두 사건이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시간관계 속에서 종속문의 변화와 주문의 변화가 상관성을 갖고 같이 변화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본다.

(42) 3日目の本来の自分に戻る瞑想を行ったときでした。今、何を感じていますか。その感情はあなたですか。違いますね。あなたは肉体ですか。あなたは感覚ですか。そんな風な質問が静かにゆっくりと繰り返され、それを感じていくとともに、少しずつ、本来の自分自身が現れてきました。(朝日新聞2001)

(42)는 특정한 인물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건의 시간적 추이, 전개를 보조동사 「ていく」 와 「てくる」 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두 사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종속적은 질문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변화가 계속 진전되어 가는 상태를 「ていく」 로,

기점을 기준으로 화자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를 「てくる」로 나타내고 있다. 종속문과 주문의 변화는 동일한 인물의 심적 상태가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종속문과 주문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동(連動)해서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듯 시간적 흐름 속에서 종속문과 주문이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상관관계(相関関係)¹⁶⁾에 있다고 한다.

「とともに」가 종속문이 변화에 따라 연동해서 주문이 변화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주문의 변화만을 나타내는 부대상황과 비교해 본다. 상관관계와 부대상황은 동시병렬적 행위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부대상황은 종속문의 시간 폭 내에서 일어나는 주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종속문은 부수적인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 (42)의 「とともに」대신에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ながら」로 바꾸어 본다.

(42a) × それを感じていきながらながら、少しずつ本来の自分自身が現れてき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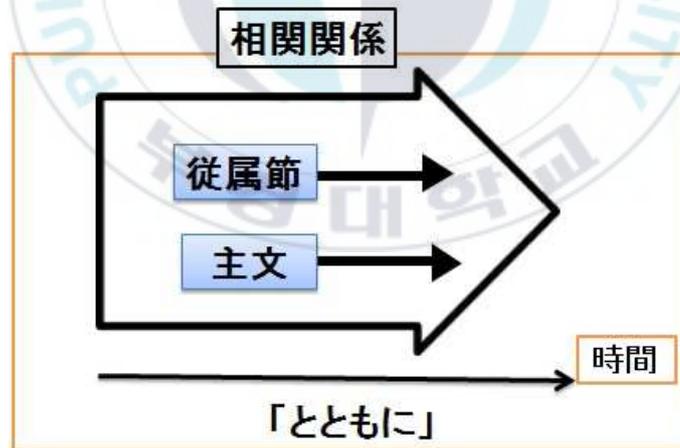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ながら」는 어떤 동작이 행해지는 것과 동시에 별개의 동작이 행해지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42)의 「感じていく」는 종속절이 변화하는 것으로 인해 주절의 변화도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대상황과는 다르다. 바꾸어 말하면, 「とともに」는 주문의 비중이 큰 것이 아니라, 종속문의 점차적인 변화에 따른 주문의 변화를 나타내므로, 주문의 변화 정도는 종속문의 변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듯 주문과 종속문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는 인과성의 띠게 되어 조건이나 이유를 나타내기도 한다.¹⁷⁾

16) 『中上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2002:447)

(43) 有珠山近くの虻田町で報道陣が待機している場所からは、次々と噴き上がる噴煙が、視界の大部分を占めるように見えた。周囲の森林には、火山灰が降り積もり始めた。噴煙の出る位置は、時間がたつとともに移動を始め、拡大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
(朝日新聞2000)

(44) 気持ちは二十年前と変わっていないつもりでも、どことなく、くたびれて、たるんだ顔の中年女がそこにいる。人は持って生まれた造作にかかわらず、年を取るとともにいい顔になる人と、そうでない人がいる。
(朝日新聞2000)

(43), (44)의 시간관계를 살펴보면, 종속문은 「時間が経つ」, 「年を取る」로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고, 주문은 시간 변화에 따른 분연(噴煙)위치의 확대과정과 얼굴(표정)의 변화를 나타낸다. (42), (43), (44)는 「계속상 (비과거) - 계속상 (비과거)」이므로 전체적 동시성을 나타낸다.



17) 『中上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2002:449)

2.4 시간의 종속복문에서 「とともに」의 의미분화

「とともに」의 의미분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제 2장에서 살펴본 예문을 아스펙트·텐스에 따라 정리하면 <표8>과 같다.

< 「とともに」의 아스펙트와 텐스 >

< 표8 >

예문 번호	목차 번호	종속문 동사	아스펙트 (텐스)	주문 동사	아스펙트 (텐스)
35	2.1	失う	脱아스펙트(과거)	見えなくなる	脱아스펙트(과거)
36		思う	脱아스펙트(과거)	思う	脱아스펙트(과거)
37		突破する	脱아스펙트(과거)	更新する	脱아스펙트(과거)
38		なる	脱아스펙트(비과거)	なる	脱아스펙트(비과거)
39	2.2	する	계속상(과거)	始める	완성상(과거)
40		発表する	계속상(과거)	述べる	완성상(과거)
41		避ける	계속상(비과거)	する	계속상(비과거)
42	2.3	感じていく	계속상(비과거)	現れてくる	계속상(비과거)
43		経つ	계속상(비과거)	始める	계속상(비과거)
44		取る	계속상(비과거)	なる	계속상(비과거)

<표8>를 보았을 때, 목차번호 2.1은 아스펙트를 나타내지 않으며, 2.3은 계속상으로 경계가 명확하다. 반면 2.2는 「계속상-완성상」 「계속상-계속상」으로 나누어지나, 의미상 구분되지 않으므로 2.1과 2.3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상태를 나타내는 2.1에서 시간상의 동시성을 나타내는 2.2, 두 사건의 연동된 변화(상관관계)를 나타내는 2.3으로 갈수록 점차 시간 폭을 갖게 되고, 변화되는 정도가 커지게 된다. 원의(原義)를 알기 위해 사전적 정의를 참고로 하면, 「ともに」의 설명부분에 「ひとつになって」, 「いっしょに」, 「相連れて」처럼 「ともに」는 「함께」라는 의미가 중심에 있다. 이것은 명사와 명사가 함께한다는 의미기능에서 출발하여, 점차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면서 시간 폭을 가지게 되고, 시간의 전후관계를 나타내면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 마지막으로 전건과 후건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상관관계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으로 「とともに」가 가지는 다의적인 의미기능을 분석하고, 의미가 분화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と同時に」와 「とともに」의 의미기능을 비교하고, 각각의 전형적인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3. 「と同時に」와 「とともに」의 의미기능 비교

제 1장과 제 2장으로 「同時に」와 「ともに」는 아스펙트를 나타내지 않는 항상적 특성과 단순한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와 아스펙트를 나타내는 동시성에서 유사하며, 계기성과 상관관계는 각각 다른 의미영역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두 표현을 바꾸었을 때 문장으로서 성립가능가를 분석하면 <표9>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 두 표현의 치환 가능 유무 >

< 표9 >

예 문	목 차	と同時に (원문표기)	とともに (치환표기)	예 문	목 차	とともに (원문표기)	と同時に (치환표기)
16	1.1	○	○	35	2.1	○	○
17		○	○	36		○	○
18		○	○	37		○	○
19		○	○	38		○	○
20	1.2.1	○	○	39	2.2	○	○
21		○	○	40		○	○
22		○	○	41		○	○
23		○	○	42		○	×
24	1.2.2	○	×	43	2.3	○	×
25		○	×	44		○	×
26		○	×				
28	1.3	○	×				
29		○	×				
30		○	×				
31		○	×				

<표9>로 「と同時に」가 항상적 특성, 전체적 동시성인 경우와 「とともに」가 단순한 상태나 동시성을 나타낼 때에는 두 표현은 바꾸어 사용할 수 있지만, 「と同時に」가 부분적 동시성 혹은 계기성을 나타내거나, 「とともに」가 상관관계일 때에는 바꾸어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동시성을 나타내더라도 「と同時に」가 부분적 동시성을 나타낼 때에는 「とともに」와 바꿀 수 없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3.1 치환 가능한 의미기능

첫 번째로 아스펙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と同時に」는 항상적 특성을 나타내고, 「とともに」는 단순한 상태를 나타낸다. 항상적 특성은 (16), (17), (18), (19)와 같이 주어가 지니고 있는 신분, 특성을 나타내고, 단순한 상태는 (35), (36), (37), (38)과 같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속문의 발생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주문도 발생하게 된 상태를 나타낸다.

(45) さきほど「国民は国民たると同時に世界市民として自らを形成しうる」という南原総長の言葉を引きましたが、この言葉には今日でも新鮮な響きがあります。日本人の卒業生であれば、日本人である{と同時に/○とともに} 日本人であることを超え、韓国人の卒業生であれば、韓国人である{同時に/○とともに} 韓国人であることを超えるという複眼的な視点が、今日求められています。 (朝日新聞2007)

(46) この事業の完成により、踏切による交通遮断が解消される {とともに/○同時に} 踏切事故が無くなり、列車の安全運行と道路の安全性が確保されます。

(<http://www.sotetsu.co.jp/train/crossover>)

(45)는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떠한 나라의 국민인 성질과 그것을 뛰어넘은 성질을 함께 가짐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으로 이 두가지 성질은 시간이 흘러도 지속해야 하는 속성을 나타낸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태를 나타내는 「とともに」와 바꾸어 쓸 수 있으며, 의미상으로도 차이가 없다.

(46)은 건널목 공사결과 발생된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의 사건이 완성된 결과 전건과 후건의 내용이 동시에 해결된 것을 나타낸다. 공사 결과 완성된 상태는 이미 완료된 상태가 지속될 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적 특성을 나타내는 「と同時に」로 바꿀 수 있으며, 의미상의 차이도 없다.

두 번째로 「同時に」와 「とともに」가 전체적 동시성을 나타낼 경우 두 표현은 바꿀 수 있다.

(47) 21世紀初頭における社会状況をどのように展望するかは、様々な変化や要素を考える必要があり一概に言い表すことは難しいが、少子高齢化が進行し生産年齢人口が大幅に減少する{同時に/○とともに}、産業構造や雇用形態に大きな変化が起こる時代になると考えられる。(朝日新聞2001)

(48) 今年度も、市立図書館 18 館の効率的な運営に努める {ともに/○と同時に}、図書館情報システムを活用した調査研究支援や情報発信など市民サービスの充実を図ります。昨年度に引き続き、市民利用施設等での図書館資料の貸出・返却について試行調査を行います。

(<http://www.city.yokohama.jp/me/kyoiku/library/gaiyou/2006-7.pdf>)

(47)은 현대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용형태도 변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전건의 발생으로 인해서 후건이 일어나는 인과성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일본 사회라는 특정 영역 내에서 두 사건이 병행해서 일어나는 내용이고, 주제가 되는 21세기 사회의 발전내용으로 연결되므로 「とともに」로 바꾸어 넣을 수 있다.

(48)은 요코하마 시립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방법으로 전건은 경영적인 측면에 관해, 후건은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서관 운영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47)과 같이 「と同時に」는 평소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라도 「同時に」로 연결됨에 따라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반면, 「とともに」는 표면적으로도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전건과 후건에 위치하게 된다. 더불어 「とともに」는 전체적 동시성과 부분적 동시성이 의미상 대립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동작의 시작이 언제인가 보다는 변화과정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8)의 경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시민을 지원하는 것이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47)은 저출산 현상이 시작되는 것이 현대 사회를 나타내는 하나의 요소이고 산업이나 고용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 또한 현대 사회를 나타내는 하나의 요소로 두 사건은 이전 사회와 구별되는 변화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이전과 이후를 경계가 드러나는 만큼 「同時に」는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시작되는 기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47)의 「同時に」를 「とともに」로 바꾸어 넣으면 전건과 후건의 내용은 상관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출산이 점점 심해지는 정도와 산업, 고용의 형태가 바뀌어 지는 변화가 연결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48)의 「とともに」를 「同時に」로 바꾸면, 도서관 개관 등으로 인해 다른 도서관과는 차별되는 경영과 시민 개방을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두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이 매우 근접해 진다. 실제 (48)은 문장 속에서 「今年度」와 「昨年度」로 시간상 4월1일을 경계로 한 변화를 나타내므로 「とともに」를 「同時に」로 바꿀 수 있다.

「とともに」가 부분적 동시성을 나타낼 경우도 「同時に」로 바꾸어 넣을 수 있다.

(49) 高梨会頭は、4月28日に開催した定例記者会見で、デフレ経済下におけ

る中小企業対策の積極的展開など松沢新神奈川県政への期待を述べる {とともに/
〇と同時に}、企業等OB人材を発掘し、データベース化して人材情報を提供する
「企業等OB人材マッチング神奈川県」を設置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朝日新聞2001)

(49)는 기자회견에서 회장이 말한 내용을 요약해서 기술하고 있다. 회장이 말한 여러 가지 내용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가나가와 현정(県政)과 OB인재 발굴을 위한 협의회 설치를 밝힌 점이다. 전건과 후건의 사건은 둘 다 가나가와현의 정치적인 요소와 관계되는 것으로 「とともに」로 연결되어 있다. 「言う、述べる、語る」와 같이 발화와 관계되는 동사는 「とともに」로 연결될 경우 한 명의 화자가 두 내용을 이야기 한 것을 나타내므로 자연스럽게 부분적 동시성만을 나타나게 된다.

전체적 동시성에서도 언급하였듯이 「とともに」는 동작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더라도, 같은 기자회견 시간과 장소라면 「とともに」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자회견장에서 A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정치에 대한 기대를 말하고, 다른 내용을 말하는 등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후에, B기자의 질문에 대해 협의회에 관해 대답했다고 하더라도, 동일주제에 관한 내용이라면 신문지면에서는 하나로 묶어 (49)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반면, 「と同時に」로 바꾸면 계기성으로 해석이 되어 전건을 말한 후에 시간적인 간격 없이 연속적으로 후건을 한 번에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발화와 관련된 동사와 「同時に」가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50), (51)과 같이 계기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경우가 많다.

(50) 記者会見で、被害者側弁護団長の新美隆弁護士は振り返った。「第一歩を踏み出す者が味わう産みの苦しみがあった」新美弁護士は、「画期的だ」と喜

びを語る{と同時に/○とともに}、原告二人が和解勧告後に亡くなり、和解を分かち合えなかったことへの無念さを口にした。(朝日新聞2001)

(51) 亮太の前に用意されたお皿へとケーキがおかれ、良太は大きな声で「いただきます！」と 言う{同時に/○とともに} ヨモギケーキをおもいっきりほお張りしました。(朝日新聞2001)

3.2 치환 불가능한 의미기능

「と同時に」와 「とともに」를 서로 바꾸어 넣을 수 없는 경우는 「同時に」가 부분적 동시성 혹은 계기성일 경우와 「とともに」가 상관관계인 경우로, 이때는 <표10>처럼 주문과 종속문이 형태상으로도 대립하고 있다.

< 계기성, 상관관계를 아스펙트·텐스 >

< 표10 >

「同時に」가 계기성을 나타내는 경우					
28	1.3	開く	완성상(과거)	払う	완성상(과거)
29		降りる	완성상(과거)	出発する	완성상(과거)
30		置く	완성상(과거)	鳴る	완성상(과거)
31		終了する	완성상(과거)	登録する	완성상(과거)
「とともに」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42	2.3	感じていく	계속상(비과거)	現れてくる	계속상(비과거)
43		経つ	계속상(비과거)	始める	계속상(비과거)
44		取る	계속상(비과거)	なる	계속상(비과거)

「と同時に」는 주문, 종속문이 완성상 과거이며, 「とともに」는 계속상 비과거로 대비된다. 의미면에서도 「同時に」가 계기성을 나타낼 경우 종속문과 주문은 별개의 내용인 것에 비해, 「とともに」가 상관관계를 나타낼 경우는 주문과 종속문 동시에 변화되면서 진행된다. 이것으로 「とともに」의 전형적인 의미는 상관관계로, 「同時に」의 전형적인 의미는 계기성으로 볼 수 있다.

「同時に」의 의미분화에서 살펴본 것 같이, 「同時に」는 계기성을 나타내던 것에서 시간적 중복영역이 생기면서 부분적 동시성, 전체적 동시성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따라서 부분적 동시성은 계기성과 전체적 동시성 사이의 중간적인 단계이다. 「同時に」가 부분적 동시성을 나타낼 경우, 종속문이 발생함으로 인해 주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점은 「とともに」가 가지는 단순한 상태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상태는 종속문이 성립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주문의 사건이 성립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스펙트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변화 과정 없이 한 시점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성립함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부분적 동시성을 나타내는 「同時に」는 종속문이 진행되는 도중에 주문이 발생하게 되므로 시간적 추이과정이 드러난다.

(52) 今回の演奏会にあっても、ホールにいて静かに目を閉じると、もはやそこにレオンハルトは存在していない。目をあければ、チェンバロに向かったレオンハルトの姿があるのだが、目を閉じる{同時に/×とともに}、演奏者の姿は透明になり、ただ響きだけが、天上界から降りそそぐように響いてくるのを、私は実感するのである。それは誰の「演奏」でもない、さらに断じて、「レオンハルトの音楽（所有形としての）」ではありえない、いわば、響きそのもの、響き自体、とでも呼ぶしか形容の術のない、一個の美的現実であった。つまり、レオンハルトは、音楽を演奏することに

よって、そこに存在しなく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だ。現代の多くの演奏家が、音楽を演奏することによって、より強烈に自己の存在をアピールしていくことと、まったく正反対の現象である。

(<http://www.ss.ij4u.or.jp/~aida/leonhardt991019.html>)

(52)에서 눈을 감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서 음악을 듣게 되고 화자는 음악 세계에 빠져들게 된다. (52)는 시간에 따른 변화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눈을 감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눈을 뜨면 눈앞에서는 챔벌로를 연구하는 연주자의 모습만이 보이게 되어 음악세계에 빠져든 행위는 지속되지 않는다. 눈을 감고 있는 행동이 지속되는 동안 음악을 들으면서 연주자의 모습은 잊고 음악 세계에 몰입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부분적 동시성을 나타낸다. 「と同時に」가 부분적 동시성을 나타낼 경우 종속문은 주문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적인 상황을 나타내므로 진건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후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써 인과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とともに」는 종속문의 변화 속에서 그와 맞물려 주문의 변화가 점차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따라서 (52)의 「同時に」를 「ともに」로 바꾸면 눈을 감는 동작이 단계적으로 나뉘어져 버려서 「눈을 완전히 뜬 상태 → 반만 뜬 상태 → 완전히 감은 상태」라는 단계 속에서 「연주자가 확실히 보임 → 연주자가 희미하게 보임 → 연주자가 투명하게 보임(안 보이게 됨)」이 맞물려서 변화되는 관계를 가지므로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同時に」의 부분적 동시성은 의미면에서는 「ともに」와 바꾸어 쓸 수 없고, 형태면을 보았을 때 다음 <표11>와 같이 종속문과 주문은 계속상이고, 텐스도 비과거와 과거 둘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同時に」가 가지는 전형적인 의미로는 보기 어렵다.

< 「と同時に」가 부분적 동시성을 나타내는 경우 >

< 표11 >

「同時に」가 부분적 동시성을 나타내는 경우					
24	1.2.2	聞く	계속상 (비과거)	流れる	완성상 (과거)
25		閉じる	계속상 (비과거)	眠ってしまう	완성상 (과거)
26		公開される	계속상 (과거)	大ヒットする	완성상 (과거)

이상으로 두 표현을 바꾸어 넣었을 때 자연스러운 문장과 바꾸어 넣었을 수 없는 경우를 통해 두 표현의 의미영역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3.3에서는 바꾸어 넣었을 때 완전히 문법적으로 바른 문장인 것은 아니지만, 부자연스럽지 않은 경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3.3 치환 시 부자연스러운 의미기능

(53) 뉴뮤직의先駆けになったバンド・チューリップが、今夏にも再結成される。元リーダーの財津和夫が企画、仲間たちの同意も得たという。財津は、実験的なソロアルバム「PRIVATE MOON」を昨秋発表する {とともに/?と同時に} ツアーをスタート、三月まで全国展開中だ。 (朝日新聞2000)

(54) 「自分がやった」と関与を認め、爆発物は「本を見て作った」と供述していることが二十日、わかった。操作本部は爆発物を作った動機を調べる {とともに/?と同時に} 、大阪、埼玉両府県察と連携して裏付けを急ぐ方針だ。

(朝日新聞2001)

(53)과 (54)는 두 표현을 바꾸어 넣었을 때,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는 않았으나, 부자연스럽다.

(53)은 「とともに」 대신에 「と同時に」를 넣어도 문장은 성립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수가 새 앨범을 낸 후 곧바로 콘서트투어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새 앨범을 발표하고, 홍보활동을 한 후에 콘서트 투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同時に」를 넣으면 앨범이 발매되면서 바로 콘서트를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일반적인 상황과 맞지 않아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54)와 같은 문장은 특히 뉴스 등에서 사용되는 문장의 형태로, 「同時に」는 「とともに」에 비해 「驚く、嘆く、うれしい」와 같이 화자의 감정이 흥분되어 있는 동사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신문, 뉴스에서는 「とともに」가 많이 사용된다. 대비적으로 (55)와 같이 화자가 어떤 사항을 통해 놀라는 극단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에 「とともに」는 사용할 수 없다.

(55) 米国の発想力はすごいものがあると驚く{同時に/×とともに}、臓器などを印刷するという発想はある意味おもしろくもあたり恐ろしくも思えた、このような発想は、現在の多くの人のように固定観念にとらわれていては出来ないと思うし、米国の自由さが印象に残った。それと同時に米国での発想を現実の物へ実現させる日本の高い技術力にも驚かされた。(「熊本大学・遺伝子実験施設レポート」)

제 3장에서는 「同時に」와 「とともに」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알아보고, 두 표현의 의미영역을 검토하였다. 3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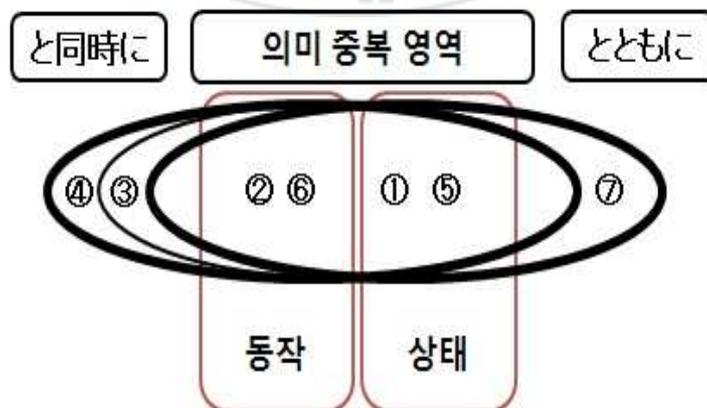
❶ 「と同時に」의 의미기능

- ① 항상적 특성: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신분, 특성을 표현
- ② 전체적 동시성: 주문과 종속문의 내용은 일정한 기간내에서 주문과 종속문이 함께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며, 관련성이 없는 사건도 가능
- ③ 부분적 동시성: 종속문이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며 그 결과 발생한 사건
- ④ 계기성: 종속문이 완료된 후 연속적으로 주문이 발생
- ※ 의미 분화 순서 : ④→③→②→①
- ※ 「夕形」 : 종속문의 동작이 완료된 직후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을 때

❷ 「とともに」의 의미기능

- ⑤ 단순한 상태 : 종속문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 주문의 사건도 자연적으로 성립함
- ⑥ 동시성 : 한정된 시간 혹은 공간 내에서 두 사건이 발생. 상관성을 포함
- ⑦ 상관관계 : 종속문이 점차적으로 변화함에 관련되어 주문도 점차적으로 변화함
- ※ 의미분화 순서 : ⑤→⑥→⑦

❸ 「と同時に」와 「とともに」의 의미기능 비교



○ 의미 중복 영역

상태를 나타내는 ①,⑤는 차이 없음

동작을 나타내는 ②,⑥ 「とともに」는 사건의 진행과정에 초점

「と同時に」는 사건의 동시적 발생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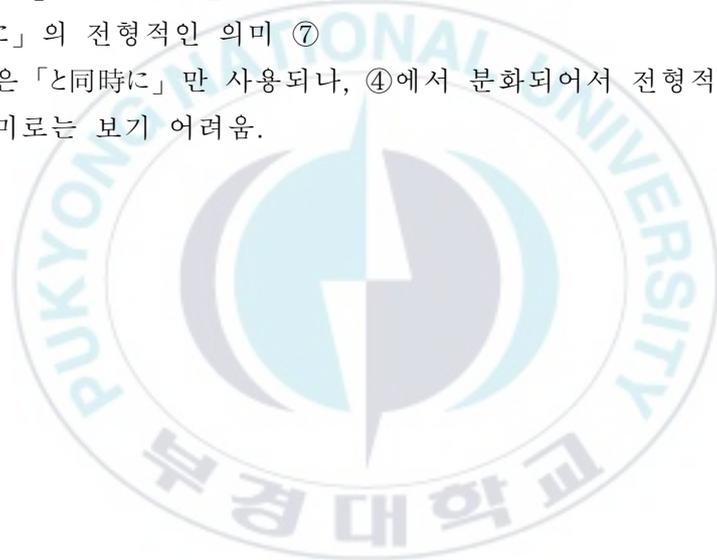
※ 문법상으로는 성립하나, 의미상 부자연스러운 것은 문장이 되는 것은 바꾸어 넣은 문장이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임.

○ 전형적인 의미

「同時に」의 전형적인 의미 ④

「とともに」의 전형적인 의미 ⑦

※ ③은 「同時に」만 사용되나, ④에서 분화되어서 전형적인 의미로는 보기 어려움.



Ⅲ. 결 론

본 연구는 복합접속조사 「と同時に」와 「とともに」의 다의적, 유의적 의미기능을 분석하였다. 「同時に」와 「ともに」의 주문과 종속문은 시간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나누어진다. 工藤의 복문에서의 시간관계를 근거로 하여 주문과 종속문의 시간관계에 따라 동시성과 계기성으로 나누고, 동시성은 전체적 동시성과 부분적 동시성으로 분류하여 시간적 체계 내에서 두 표현의 의미기능에 대해 분석하였다.

「同時に」는 4가지 의미기능을 나타낸다. 첫째, 항상적 특성을 나타낼 때에는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신분, 특성을 표현한다. 둘째, 전체적 동시성을 나타낼 때, 주문과 종속문의 내용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하며, 주문과 종속문의 내용은 부가되는 내용일 수도 있으며, 대비되는 내용일 수도 있다. 셋째, 부분적 동시성을 나타낼 때는 종속문이 계속상이고 주문이 완성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종속문이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고 그 결과 발생한 사건이 주문에 나타나게 된다. 넷째, 계기성을 나타낼 때, 주문과 종속문은 완성상이며, 종속문이 완료된 후 주문이 발생하게 된다. 「同時に」의 의미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초기의 「同時に」는 계기성을 나타낸 것에서 출발하여 시간적 영역이 겹쳐짐에 따라 동시성을 나타내게 되고, 동시성의 시간적 개념이 정지되면서 항상적 특성을 나타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同時に」에서는 종속문 동사의 형태가 「夕形」인 경우가 발견되는 데, 이것은 계기성을 나타내는 「同時に」의 용법 중, 종속문의 동작이 완료된 직후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을 때, 형태상으로도 강조하기 위해 「夕形」이 사용된다.

「とともに」는 3가지 의미기능을 나타낸다. 첫째 텐스는 나타내지만 아스펙트는 나타내지 않는 단순한 상태이다. 이 경우 종속문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 주문의 사건도 자연적으로 성립함을 의미한다. 둘째 동시성을 나타낼 경우, 한정된 시간 혹은 공간 내에서 두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とともに」의 동시성은 「と同時に」의 동시성과 비교하였을 때, 두 사건이 상관성을 포함하고 있다. 두 사건이 상관성을 가지지만,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부분적 동시성을 나타내고, 시간적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주문과 종속문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두 방법을 나타내게 되어 전체적 동시성을 나타내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상관관계는 종속문이 점차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주문도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とともに」가 상관관계일 때에는 종속문과 주문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항상 전체적 동시성을 나타내게 된다. 「とともに」는 시간관계와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とともに」는 「ともに」에서 유래한 것으로도 단순한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에서 점차 시간 폭을 지니게 되면서 동시성을 나타내게 되고, 주문도 종속문도 변화하게 되는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と同時に」와 「とともに」의 의미기능을 비교하였을 때, 「同時に」가 계기성을 나타내는 용법과 「とともに」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용법이 두 표현의 가장 고유한 의미기능이다. 「同時に」와 「ともに」의 의미 중복영역을 동작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면, 첫 번째로 동작은 「同時に」가 전체적 동시성이고 「とともに」는 동시성을 나타낸다. 이 때 두 표현을 바꾸어 넣었을 때 문장은 성립하며, 차이점으로는 「同時に」는 사건의 동시적 발생에 초점이 있고, 「とともに」는 사건 진행과정에 초점이 있다. 두 번째로 상태일 경우, 「同時に」는 항상적 특성이며 「とともに」는 단순한 상태로 두 표현을 바꾸어 넣어도 의미상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

마지막으로 두 표현을 바꾸어 넣었을 때 문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것은 바꾸어 넣은 문장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장면, 지식과 맞지 않거나, 사용되는 표현 자체가 특정 사용장면에서 이미 고정되어 사용되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일본어의 시간을 나타내는 복문의 관점에서 복합접속조사 「と同時に」와 「とともに」의 의미기능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관점을 확대시켜 「同時に」 「ともに」의 아스펙트를 더욱 세분화하여 고찰하고, 특히 「ともに」가 동시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문법적 특징에 따라 세분해서 나누어 구분지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につれ」 「にともない」 「にしたがって」 등도 분석하여 시간을 나타내는 복합접속조사의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고찰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奥田靖雄(1977) 「アスペクトの研究をめぐって一金田一的段階」 『国語国文 8』 宮城教育大
2. 庵功雄・高梨信乃・中西久美子・山田敏弘(2000) 『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3. _____ (2002) 『中上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4. 工藤真由美(1997) 『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ー現代日本語の時間の表現』 ひつじ書房
5. グループ・ジャマシイ編著 (2002) 『教師と学習者のための日本語文型辞典』 くろしお出版
6. 菅谷奈津恵(2002) 「第二言語としての日本語のアスペクト習得研究外観ー「動作の持続」と「結果の状態」のテイルを中心にー」 『言語文化と日本語教育』 2002年5月特集号
7. 砂川有里子(1987) 「複合助詞について」 『日本語教育61号』 日本語教育学会
8. 鈴木重幸(1965) 「現代日本語の動詞のテンス」 『ことばの研究2』 秀英出版
9. 塩入すみ (1997) 「「変化の運動」を表す副詞節の分析ートモニ・ニツレ・ニトモナイ・ニシタガイー」 『東呉日語教育学報 第22号』 東呉大学日本語文学系編
10. 永野賢(1953) 「表現文法の問題ー複合辞の認定について」 『金田一博士古稀記念言語民族論叢』、金田一博士古稀記念論文集刊行編集
11. 野田尚史・増岡隆志・佐久間まゆみ・田窪行則(2002) 『複文と談話』 岩波書店
12. 益岡隆志・田窪行則(1993) 『基礎日本語文法ー改訂版』 しろしお出版

13. 松木正恵 (1993) 「複合辞」 『国文学』 学灯社
14. _____ (2003) 「文法研究一単文から複文、そして文章・談話へ」 『早稲田大学日本語研究第11号』 早稲田大学日本語学会
15. _____ (2003) 「複合辞研究史 I 「複合辞」の提唱」 『学術研究一国語国文学編一第52号』 早稲田大学教育学部
16. _____ (2004) 「複合辞研究史 I 「複合辞」の提唱」 『学術研究一国語・国文学編一第53号』 早稲田大学教育学部
17. 森田良行 (1980) 『基礎日本語辞典』 角川書店

<용례출전>

1. 『CD HIASK 2000』 (朝日新聞記事データベース) (2001) 紀伊国屋書店
2. 『CD HIASK 2001』 (朝日新聞記事データベース) (2002) 紀伊国屋書店
3. 『CD ROM版 新潮文庫の100冊』 (1995) 新潮社
4. 인터넷 사이트
 - ① http://www.wan1.ne.jp/?act=Info_training
 - ② <http://www.sotetsu.co.jp/train/crossover>
 - ③ <http://www.city.yokohama.jp/me/kyoiku/library/gaiyou/2006-7.pdf>
 - ④ <http://www.ss.ij4u.or.jp/~aida/leonhardt991019.html>
 - ⑤ <http://gtc.gtca.kumamoto-u.ac.jp/STAFF/~MASA/ls02-t2.html>
 - ⑤ <http://www.asahi.com/>